

# 패트법 오늘 본회의의 상징... 여야 결전의 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기 위한 '연동형비례제 선거법'의 협상과 본회의의 상징을 앞두고 여야 각당이 총출동하고 있는 가운데 휴일인 15일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중인 정의당(왼쪽부터), 민주평화당과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각각 농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 4+1 협의체 합의의 근접... 민주, 19일 임시국회서 처리 방침 한국당 기자 간담회...예산안 처리·4+1 협의체 비난 여론전

여야는 15일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출구 없는 극한 대치로 치달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파라톤 협상' 시한으로 16일을 정해놓았지만, 이렇다 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가능성만 커지면서 현재로서는 여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문 의장 역시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16일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민주당은 '4+1'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의 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한국당을 향해 '역사의 낙오자가 되지 말라'며 압박을 병행하는 중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문 의장이 강권한 사흘간의 마라톤협상 시간이 끝나간다. 시한이 끝날 때까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내일 다시 의정계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을 일괄 상정하고 19일부터 새로운 임시국회를 열어 이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회기 결정의 건'에 선정된 한국

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전행 방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 안건도 의결하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민주당과 군소 야당의 이견으로 '4+1' 협의체의 선거법 합의안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변수다. 민주당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의석을 나누되 비례대표 50석 중 최대 30석에만 '캡' (cap)을 씌워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의당 등은 이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반대하지만 군소 야당이 원하는 석패율제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 30석 연동형 캡을 도입하되, 군소 야당이 바라는 석패율제도 3석 두는 방향으로 '4+1' 협의체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

만, 최종 합의안 도출 여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반면, 한국당은 범여권과 별도의 접촉 없이 민주당을 향한 공세와 '4+1' 협의체 비난 여론전에 나섰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이날 국회 로텐더룸 농성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1'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강하게 비난했다. 황 대표는 "512조원의 예산안은 제1야당이 배제된 채 불법 처리된 총선 대표용 예산이었다. 극단적 복지 포퓰리즘의 마약이었다"며 "(4+1) 예산안 날치기에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 양대 반민주 악법의 날치기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좌파독재와 복지 포퓰리즘은 망국의 조함"이라며 "대한민국이 망국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기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민주, 현역 불출마 지역 전략공천 검토

최대 40곳 전망... 개혁·쇄신 키워드로 분위기 선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이 불출마하는 지역을 전략선거구, 이른바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역 불출마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략공천을 실시, 참신한 인재 영입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면서 개혁과 쇄신을 키워드로 전체 선거를 끌고 가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5일 "현역 불출마 지역은 기본적으로 다 전략 지역이 된다고 보면 된다"면서 "전략 지역으로 올려놓고 이후 공천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해당 지역 및 선거 상황에 따라 당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공천을 하겠다는 의미다. 전략공천은 경선 등 상향식으로 후보자를 정하는 대신 중앙당 공천기구가 경쟁력 있다고 판단하는 후보를

선정하는 제도로,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전체 20%(253석 기준 50곳)를 전략공천할 수 있게 돼 있다. 민주당은 또 현재 진행 중인 현역 의원에 대한 최종평가가 완료되면 추가로 자발적 불출마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불출마자(현재까지 비례대표의원 포함해 11명)를 빼고 하위 20%를 계산(23명)할 예정이다. 현재 불출마가 확정됐거나 예상되는 지역구 의원이 10여명, 여기에 하위 20% 적용으로 불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지역구 의원이 20명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일단 30곳 안팎이 전략공천 지역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당 일각에서는 약세지역인 영남과 호남 일부 지역에서 전략공천 필요성까지 고려하면 최대 40곳 정도가 전략선거구 검토 대상에 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 사분오열 '바른미래'

安·劉 결별에 의원들 진로 안갯속... 당권과 孫 거취 신경전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보수당' 창당 작업을 고리로 바른미래당 주요 계파들이 사분오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8년 1월 유 의원의 바른정당과 안철수 전 의원의 국민의당이 통합해 탄생한 바른미래당은 이제 두 세력의 결별에 더해 손학규 대표와 일부 '당권파' 의원들 간의 신경전으로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모양새다. 현재 안철수계 의원 7명은 앞으로의 정치적 진로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유승민계 의원 8명과 함께 '비당권파'를 이뤘던 이들은 애초 새보수당 합류가 점쳐졌으나, 안 전 의원의 '불참 의사'에 따라 향후 행보가 안갯속이다. 현재 이들에게는 바른미래당 잔류, 새보수당 등 다른 정당 합류, 신당 창당 등의 선택지가 남은 상황이다. 새보수당에 맞춰 '제3지대 재창당'을 추진하는 당권파에서는 내부 잡음이 나오고 있다. 일부 당권파 의원은 최근 손 대표 면전에서 '유승민계가 탈당하면 손학규 대표도 즉각 2선으로 후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을 진정한 '제3지대 정당'으로 재창당하는 데 초석을 놓은 뒤 물러나겠다"며 '즉각 후퇴론'에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권파 내부에서도 손 대표의 거취를 놓고 신경전이 불거진 모양새다. 한 당권파 의원은 통화에서 "손 대표가 그간 안철수·유승민계에 맞서 처절하게 싸운 점에 대한 자문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손 대표가 직접 나서면 '제3지대 재창당'은 더 어려워진다. 어쩔 수 없는 옹호 요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총선 라운지

### 민주 송갑석 의원 "골목마다 광주정신 빛날 것"

DJ센터서 출판기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서구갑) 의원이 15일 자신의 책 '광주, 양심을 건다' 출판기념회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었다. 송갑석 의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3·1운동의 불길이 처음 시작된 양림동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게 돼 뜻 깊다"며 "광주의 골목마다 3.1운동을 근간으로 하는 광주정신이 밝게 빛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송영길·이재호·서삼석 국회의원과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장 등 200여명의 내빈을 비롯한 500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으며, 이용섭 광주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김부겸·우상호·윤호중 국회의원 등 30여명의 동료의원 및 단체장들이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 "여의도 정치 대전환"

'정치의 반전...' 출판기념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이 15일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김영배·김우영·북기왕 등 전 청와대 비서관들과 함께 쓴 책 '정치의 반전을 꿈꾸다'의 출판기념회를 했다. 민 전 비서관 등 공저자 4인은 "2010년 지방선거 이후 8년 동안 자치단체장으로 활동했고, 문재인정부 청와대



비서관으로 함께 일한 자칭 '일공세대'가 촛불정부에 결맞은 촛불국회를 만들어 2020년 여의도 정치의 대전환과 반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한 민 전 구청장은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산구를 출마를 준비 중이다.

### 이정희 변호사 "광주·남구형 에너지 뉴딜 추진"

광주 동남갑 출마

한국전력 상임감사를 지낸 이정희 변호사가 지난 1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출마를 선언했다. 이 변호사는 "광주와 남구의 경제적 정체, 혁신도시를 둘러싼 광주의 전남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웠다"며 "광주와 남구의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 모델로 에너지 신산업을 핵심으로 하



는 광주·남구형 에너지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조성 중인 남구의 에너지밸리 산단에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을 유치해야 한다"며 "남구의 에너지밸리를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것이 광주와 남구가 사는 길이다"고 덧붙였다.

### 김승남 위원장 "농어업 보호·육성책 마련 시급"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 '행복한 전남...' 출판기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고흥군민회관에서 저서 '행복한 전남, 빛나는 코리아' 출판기념회를 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 송영길·서삼석·김민기 의원, 김철우 보성군수, 정중순 장흥군수, 이승욱 강진군수 등 각계각층 주요



인사 등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농어촌 및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하루속히 국가 위상에 걸맞는 농어업에 대한 보호와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새로운 정치를 통해 '행복한 전남과 빛나는 코리아'의 미래광항을 지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도시보다 더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